HSBC, SK해운 2대 주주 부상

SK는 HSBC그룹이 SK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7%를 확보함으로써 2대 주주가 된다고 11월25일 발표했다.

SK해운도 11월25일 SK와 HSBC그룹에서 각각 2240억원과 1120억원을 투자받아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.

유상증자가 완료되면 SK의 SK해운 지분은 100%에서 83% 낮아진다.

SK그룹 관계자는 "해운 시황이 회복되면서 영업실적이 개선된 SK해운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됐다"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1/26>